

“찾고싶은 미래도시 완성 원년으로”

경제·문화·환경·안전·인문 역점

“민선 8기 국정 목표의 원년을 맞아 ‘찾고 싶은 도시’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택 광주 동구청장은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민선 8기 정책 원년으로 삼고 ‘찾고 싶은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 완성’을 포부로 밝혔다.

임 구청장은 2일 “올해는 6대 분야 48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라며 6대 국정 목표를 소개했다.

동구는 6대 국정 목표로 ‘밝고 활기찬 경제도시’, ‘미래가 있는 희망자치도시’,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저탄소 친환경 생태도시’, ‘안전건강도시’, ‘사람 중심 인문도시’ 완성을 들었다.

우선 2년째에 접어든 ‘충장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올해부터 골목 여행 기획, 특화 거리 조성 등 관련 연계 사업을 추진하면 지역경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청일 청년 일자리 플러스’, ‘청년인턴 디딤돌 사업’ 등을 집중 지원,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동과 여성, 고령층 주민을 위한 복지 증진에도 다양한 투자를 벌인다. 지원1동과 푸른마을공동체센터 내 설치된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확대·운영해 가정 양육에 도움을 보낼 예정이다. 임신부와 영유아 가정에서 치료를 목적으로 외출할 때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동구 맘 택시’ 사업을 시행해 돌봄체계를 확충에 힘을 쏟는다.

각 분야에 두각을 보이는 재능 아동들이 경제적 여건으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다양한 후원도 이어 나갈 방침이다.



임택 동구청장

/김도기 기자

“주민 중심 생활행정 권역별 자치 실현”

소상공인 지원 등 ‘골목 경제 활성화’

“18개 동이 마을청(廳) 역할을 하면서 주민 요구에 즉각 반응하는 행정을 펼치겠다.”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은 2일 ‘주민 자치 강화’를 화두로 던졌다.

김 구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속적인 권역별 거점동·연계동 간 소통을 통해 온전한 주민 자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소통 테마길 조성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골목 경제 활성화’를 약속했다. 스타트업센터에 입주한 청년 창업가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동별 역사와 정체성을 담은 소통 테마길을 만들어 사람과 마을, 골목 경제가 상생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며 “상반기 소상공인 원스톱 활력지원센터를 설립해 상인의 매출 증대를 돕겠다”고 말했다.

‘주민 참여형’ 탄소중립 정책과 평생학습 선도도 약속했다.

서구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원 순환 가게 확대·신재생 에너지 보급 정책을 펼친다. 탄소 중립 전담 조직을 만들어 기후 위기 대응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주민 누구나 참여하고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기관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세큰대)’을 운영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등 문화 향유 공간도 넓힌다.

취약계층과 장애인들을 위한 촘촘한 복지도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높은 수준의 스마트통합돌봄 역량을 바탕으로 서구만의 독자적인 돌봄 모델을 만들겠다. 무장애 도시도 조성할 것이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관광과 습관으로부터 벗어난 발상의 전환으로 29만 서구민과 함께 2023년 생활 정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이강 서구청장

/권형안 기자

“옛 도심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백운광장·푸드존 도시 재생 ‘박차’

“백운광장과 에너지를 디딤돌 삼아 경쟁력 있는 미래 도시로 나아가겠다.”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은 2023년 계묘년(癸卯年)을 맞아 2일 ‘옛 도심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구정 화두로 던졌다.

김 구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활기찬 경제, 행복한 복지, 으뜸 효(孝) 남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남구는 내년 핵심 사업으로 ▲구 도심 도시 재생 ▲일자리 창출 ▲상권 회복 ▲체육 여가 시설 확충 ▲보편적 복지 ▲주민 안전 강화 ▲탄소 중립 도시 ▲자치 행정 도시 등을 꼽았다.

구 도심 재생 사업에 대해서는 “스트리트 푸드존(Streetfood zone)과 미디어 월(Wall), 단절된 푸른길 공원을 잇는 브릿지(Bridge) 사업이 추진되는 백운광장은 문화·경제·관광 중심지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월동 등지에 생활 SOC사업을 추진해 옛 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잡힌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도 했다.

대촌 에너지밸리 산업단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청년 지원 정책도 약속했다.

김 구청장은 “에너지밸리 산단 기업에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펼쳐 안정적인 지역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다.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도 펼치겠다”고 역설했다.

문화·교육 역점 사업으로 ‘근대 역사 문화 관광길 구축’과 ‘도시관 확충’을 꼽았다.

김 구청장은 “송하동에 문을 연 광주실감 콘텐트큐브와 아시아문화전당, 양림동에 있는 근대 역사 문화 관광길을 만들어 관광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며 “호천도서관을 개관하고 스마트 도서관을 늘려 교육 도시 입지를 굳히겠다”고 강조했다.



김병내 남구청장

/조일상 기자

“민생위기 극복 사회보호망 강화”

소상공인·중소기업 밀착 지원 강화

“매서운 경제 위기 속 구민의 삶이 더 든든하고 일상은 더욱 안전하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 화두로 ‘민생 경제 위기 극복’과 ‘사회 보호망 강화’를 꺼냈다.

문 구청장은 2일 “민생경제 회복 상생 기금을 조성하고 포용적 금융 지원을 통해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데마 별 마케팅 지원으로 지역 상권을 육성하고 각종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다. 국·도로 확대 개편한 경제현장지원단이 현장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밀착 지원하는 등 매서운 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역 자치구 최초로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중소기업 판로 개척 배우치 지원 사업, 민·관 협력 청년 일자리 시책 등도 펼치겠다고 공언했다.

사회 보호망 강화도 새해 구정 목표로 꼽았다. 문 구청장은 “기업과 사회·종교단체 등과 함께 끈끈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겠다.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복지를 실현할 것이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영구 임대 주택 그린리모델링 ▲행복공동체 커뮤니티센터 건립 ▲주거 복지 사업 대상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이전 및 그린리모델링 등을 약속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자 감염병 관리 전담 부서 신설, 지역 맞춤형 건강지원 서비스 강화 등에도 나섰다고 했다.

녹색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공공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마을 신재생 에너지 확산 등도 역점 추진한다.



문인 북구청장

/주성조 기자

“시민 이롭게 하는 행정 안전·돌봄체계 확립”

일자리 창출·도농 상생 확립

“시민을 이롭게 하는 새로운 광산을 향해 뛰겠다.”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은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 구정 목표표로 ‘새로운 변화’를 제시했다.

박 구청장은 2일 ‘민선 8기가 출범한 지난 7월부터 6개월 동안 시민, 공직자, 전문가들과 함께 광산의 새로운 길을 찾으며 구체적인 정책들을 기획했다’며 5대 핵심 구정 사업을 소개했다.

‘좋은 일자리·도농 상생 1번지’, ‘안전 도시’, ‘통합 돌봄 체계 확립과 성평등’, ‘탄소 중립과 문화관광’,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구정 구현’을 바탕으로 한 사업을 추진한다.

박 구청장은 먼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농 상생을 토대로 일하기 좋고 기업 하기 좋은 광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노후 산업단지 환경 정비, 중소기업 내 노동 환경 개선을 시작으로 도농 상생과 관련한 공공 급식 기획 생산 체계 구축 등에 나선다.

일상과 일터에서의 안전 기틀 확립, 수준 높은 공공 의료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도 약속했다.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중대재해 예방팀을 통해 광산구 내 신축 사업,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우선 확보한다.

여기서 만들어진 체계를 현장에 보급하는 방식으로 광산구 고유의 안전 관리 협력 시스템을 완성할 계획이다.

또 하남 3지구로 보건소를 신축·이전, 기존 보건소 부지에는 송정보건지소를 설치해 각 지역별 의료 공백을 최소화한다.

의료·주거·돌봄을 통합한 복지 제공과 함께 성평등 정책 확대·발굴에도 힘쓴다.

현재 우산동 권역에서 시행 중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을 구 전역으로 넓히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박병규 광산구청장

/이동기 기자

김영록 지사, 새해 발품 행정...경기장·국가산단 현장 점검

목포 전국체전 주경기장 건설·나주 에너지국가산단 살피

김영록 지사가 2일 새해 첫 현장 시찰지로 목포 전국체전 주경기장과 나주 에너지국가산단 조성 예정지 방문을 통해 현장 발품 행정을 본격 시작했다.

김영록 지사는 먼저 오는 10월 개최하는 ‘제104회 전국체전 주경기장’인 목포종합경기장 공사현장을 찾아 공사 진척 현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체전 준비를 당부했다.

목포종합경기장은 지상 3층, 연면적 2만 6468㎡, 관람석 1만 6468석 규모로 건설된다.

이곳에선 전국체전 개·폐회식 행

사와 육상경기가 치러진다. 전남도가 국비 200억원과 도비 330억원 등 530억원을 지원하고 목포시가 618억원을 들여 총 1148억원이 투입된다. 현재 공정을 70%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는 6월이면 주요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김영록 지사는 “전국체전은 도민 뿐 아니라 전국민이 기다리는 스포츠

촉제인 만큼 전남도와 목포시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성공적으로 치르자”며 “세계로 뽐내려는 전남 대도약을 견인하는 시발점이 되도록 올림픽에 버금가는 감동 체전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목포에 이어 나주시 왕곡면에 소재한 에너지국가산단 조성 예정지를 방문해 산단 배치계획안과 사업계획을 면밀히 살피고 용지가 적기에 공급되도록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전남도가 불법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여수시 만흥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 지구용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정지역은 여수시 만흥동 평촌마을 일원 825필지 0.412㎢이다.

재지정 기간은 2023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월 9일까지 2년간이며,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지정을 확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허가구역 내에서 주거지역은 6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해 거래하려면 계약 전 여수시장의 토지거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부정당한 방법으로 거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여수 만흥동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부스/농막/컨테이너 맞춤형 제작

안되는건 없습니다
원하는대로 제작해드립니다

MK하우징

설치 예정날짜와 타임만 정해서 연락주세요

타임1. 컨테이너 3X6

타임2. 컨테이너 3X9

타임3. 농막 3X6

타임4. 농막 3X9

타임5. 휴먼부스

맞춤제작

☎ 010-6265-0057

TALK